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吳 大 奎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보건기념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날을 보건의 날로 정하고 그때부터 여타 보건관계 기념일을 통합하여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으로 제16회 보건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한 금년은 세계보건기구 창설 제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보건기념일이 되면 세계 각국에 대하여 공통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촉구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표방과제로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모든 사람은 건강을 위하여(Health for All—All for Health)를 선포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매년 4월은 보건의 달, 4·7은 보건의 날로 정하여 이때를 맞이하면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건의료 관계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므로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기념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행사를 갖게 된다.

금년도 보건의 달 주요 행사계획은

1. 보건홍보 및 계몽사업 전개
2. 보건의료 봉사활동 전개
3. ’88. 4. 7을 ‘금년의 날’로 지정, 금연운동 전개
4. 건강하게 살기 범국민 운동 전개 등이다.

이중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금연운동 전개에 관하여는

가. 보건환경권의 내실화를 위한 관계법규 정비

- 공공장소의 흡연규제
- 협연권 제도화

나. 전매수익금 일부를 보건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재무부, 전매공사와 협의.

다. 금연 홍보물 제작 배포.

라. 금연운동을 질병 예방사업과 연계실시

모든 사람은 건강을 위해

- 제16회 보건의 달 행사의 의의

- 결핵, 심장병, 암 등
 - 금연학교 운영비 보조 등
- 마. 보건단체를 통한 캠페인 전개
- WHO, 금연운동 협의회 등

건강하게 살기 범국민 운동 전개에 관하여는 국민의 자율적 건강관리 능력을 提高하고 국민건강 생활지침을 생활화하며 국민체조 등을 보급하는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중이다.

국민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 국가의 건강에 대한 의무가 날로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제5공화국 헌법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모든 사람에게 2000년까지 건강을(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이라는 대목표를 세우고 매진을 하고 있고 전세계인과 국가에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없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은 잊고서 치료하기 보다 건강할 때 지켜서 향유하는 것이므로 평소 건강검진, 건강예방을 위하여 건강인에게 투자되고 비용이 환자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의료비 보다 훨씬 값진 것임을 생각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을 잊기전에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금년도 보건의 달에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또한 모든 사람은 건강을 위하여 합심 노력하는 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필자=보건사회부 보건교육과장〉